

최저임금 시급 9160원... 4월부터 출생아 바우처 200만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민생 지원 정책 등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중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병장 급여 67만원... 11.1% 인상

올해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절반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추가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18개월 복무하며 월 40만원 납입 시 원금과 이자 754만2000원에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한 약 100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운영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김포,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올해 1분기 내에 만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0세 이상으로 5년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첫 시험일은 2월 27일이다.

반려동물 목·가슴줄 2미터 제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올해 1월 21일부터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를 시행, 관리가 강화된다.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의 보호관찰 종료 후 임의 치료 중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초상권 무단사용 시 재산적 피해 보호

그간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6월 8일부터는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다중이용업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4월부터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첫남아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도 현금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금융·재정·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반도체·배터리·백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교육·보육·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사립 교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 인터넷게임 섣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
국방·병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 봉급 11.1% 인상 병장 60만8500원 → 67만6100원 이병 45만9100원 → 51만100원
행정·안전·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보안상 내구성 강화 표시색상 변경 녹색 → 남색 · 반려견동반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농림·수산·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만65세 → 만60세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환경·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이용자 포인트 세제·샴푸 등 '리필 스테이션' 이용시 포인트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 별도표기제 신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보건·복지·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최저임금액 인상 (9,160원)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자료: 기획재정부

'3+3 육아휴직제' 최대 월 600만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지원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3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이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한도로 2년 만기로 저축하면 정부가 시중 이자에 추가로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으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코로나19 등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쉬는 기간 하루 4만

1860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1% 오른다.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 4440원이다.

노동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곳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면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세제·샴푸 등을 리필해서 쓰는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세종=한용수·원승일 기자
hys@metroseoul.co.kr

